

# 언행일치 하며 살자



## 사람이면 다 삶이나,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욕심 버리고 서로 존중하면 편안한 상태 돼

-일상생활에 바쁜 재가불자들이 지속적으로 화두를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방편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화두가 쉽지는 않지. 그런 사람들은 염불을 부지런히 하면 돼. 염불이 익어지면 '염불하는 놈이 누구냐?' 어떤 놈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고?' 하며 참구하면 돼."

-참선하면서 경전이나 선어록을 보셨는지요.  
"예전에는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가끔 보았지만, 요즘엔 안 보고 살아. 나이도 들었고..."

-기축년도 경제가 어려워 불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요, 고단한 삶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요체를 일러주십시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좀 도둑들도 사람까지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극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인간이 편히 살려면 다름이 없어야 해. 그러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존중해야지. 마음 편히 살려면 무엇보다 일체 구하는 것을 쉬어(休歇)버려야 해. 일체 욕심을 버리면 돼. 그런데 버려라 하면 못 버려. 못 버려니까 시끄럽지. 자기를 비울 줄 알면 복이 없어도 힘들지 않은 법이거든.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이라는 마음 자세가 기본이란 말씀이시군요.  
"크스님, 마지막으로 새해 덕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자기 일생이 죽은 줄 알면 큰 복이야. 죽은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면 가진 게 많아도 괴로워. 그러니 불평한 마음 쓰지 말고 늘 회광반조하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해. 딱 한 쪽도 같이 나눠 먹는 복 갖는 마음으로 살면 편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다 부모님 은공이야. 내 것만 만들고 살면 사람 도리가 아"

나. 무엇인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할지 아니겠어. 그러니 무엇보다 욕심이 없어야 해. 그런 다음 바르게 믿고 법대로 행하면 돼. '니가 부처다. 그러니 니 부처를 잘 다스려라' 이 말이야. 우린 다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속이고 있으니 문제지. 내 마음 속이지 않는 게 내 부처를 속이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고 참된 삶을 사시길 당부하네."

인터뷰 내내 자기를 속이지 않는 언행일치(言行一致)를 강조한 크스님은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늘 남에게 감사하고 이웃을 공경하며 살면 힘든 인생살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거룩하고 고상한 것만을 진리로 알고 '이치를 깨치는(理入)' 데만 관심을 두는 수행자들이 많은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여실한 실천행(行入)'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문은 새해 아침, 다시 초발심으로 구도행에 나설 불자들이에게 나침반이 되리라 생각된다.

새해에는 저마다 하나의 방편을 정해 날마다, 달마다 깊어지는 자기개벽의 시절이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악산 서설(瑞雪)을 바라보니, 기축년 한 해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나저나,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에서 온 뜻은 과연 무엇일까?

글=김성우 기자 buddhapia5@hotmai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otmail.com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 <24> 황성기 박사

황성기 박사는 강원도 고성 사람이다. 1919년 5월 1녀중 막내로 태어나 오길(五吉)이라 불렀다. 고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5세에 용주사 강대련 스님 손상좌로 들어가 용주사 강원을 졸업하고, 43년 해방전문을 나왔다. 용주사 포교사로 수원 포교당에 있다가 고향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고성남초등학교, 송강초등학교, 고성중학교, 거진여중, 송탄중학교에서 교원, 교장, 교감, 교사 등을 역임하다가 다시 용주사 자혜원 교사로 임용되었다. 권상로, 김동화 박사님의 권유에 의해 동국대학교 교비장학생으로 3학년에 편입, 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이다. 58년부터 동국대학교 조교, 강

듣었는데, 박사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출판부를 맡고 있어 인쇄소에 가기만 하면 점심시간에 국수를 대접했다. 숫자에 관계없이 인쇄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수공양을 했기 때문에 사모님 손맛 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불교사상연구회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을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표방해 중생구제, 환경정화, 자아완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펼쳤다. 사후서원이 실현될 때까지 3취정제와 4섬법으로 봉사하기로 다짐했다. 그동안 우리 불교는 사찰 승려중심 불교와 형식중심의 활동을 하다 보니 교리·신앙·구제주의 의식을 망실하여 인류구제의 정맥을 서양 종교에 빼앗기고 있으니 일년만이라도 이 일을 성취하여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부모·국가·중생의 은혜를 갚

"1주일 동안 포교해 보라" 하여 열심히 정진하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도량석·종성을 하고 예불을 드린 뒤 108배에 관세음보살 1000염을 하였더니, 3일 다음부터는 밥값을 받지 않겠다 하고, 5일 후에는 박경원 지사를 만나 직접 의논해보라 하였다. "5일 동안 거리 포교로서는 가닥이 잡히지 않으니 도문화원을 이용하여 종교강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도지사 또한 "사회 인심을 법과 윤란 가지고는 순화할 수 없으니 여러 종교인과 의논하여 정기교육을 실천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강원도 문화원에서 1년 동안 실시한 종교강연으로서 기독교·불교·유교가 중심이 되고, 이따금씩 천주교와 원불교가 동참했다. 그 뒤 서산·고성지부 결성

## 東大 100년사 가운데 최초로 한 가족이 불교과 출신 58년부터 후배 양성과 문서포교·생활불교운동 전개

사, 교수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도 월간 <불교사상> <불교생활>을 출판하며 문서포교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사단법인 불교사상연구회를 조직해 전국적인 생활불교운동을 전개했으며 수원 남동동 대승원에서 법랍 46세, 세수 61세로 열반하였다. 대학 동기 김경애 여사와 결혼해 아들 3형제가 있었다. 큰아들 황근은 군법사로 호국의 간성이 되었고, 둘째 육은 동국대학교에 들어가 아버지의 학문을 계승했으며, 셋째 영은 행정에 밝아 불교사상연구회 일을 돕고 있다. 동국대학교 100년사 가운데서 한 가족 여덟명이 모두 불교과 출신인 집안은 오직 황 박사님 집안뿐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엔 을지로 5가 통일예식장에 모여 권상로·김동화·김두현·김용배씨 등 유명한 불교학자들의 강연을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개론을 배울 때는 불·법·승 3보를 통해 어떻게 한국불교를 재건할 것인가 고민하였고, 구사·유식·인명논리학을 배울 때는 교수님의 학문이 어느 누구보다도 깊고 넓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법당에 들어가서 법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육전범음회 인간문화재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일선 포교당에 나가 법문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장차 우리 불교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머리 속에 그려진다.

한번은 수원 대승원에서 불러 갔더니, "강원도 도청에 가서 박경원 지사를 만나 포교의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오라" 명령 하였다. 대학을 갓 나와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여 갔더니, 여관 하나를 정해주면서

에 동참하였고, 중앙법회 청년회 법사가 되어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하게 되었다.

박사님은 대학교수 일만으로도 바쁘게 인세를 바셨다. 과연 육이협일이 높아 종종 코피를 흘렸다. 마침내 중풍이 들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대승원에 가니 대중 앞에서 법상에 오르게 하고 3배를 하여 모든 신도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이 인연으로 12년 동안 불교사상연구회 이사를 하면서 육이가 자라나기를 바랐다. 과연 육이는 성실하게 자라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대승원 원장이 되며, 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이 되어 박사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성실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나는 법사 및 이사 소임을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속설에 의하면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오대산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시는 스님들은 혈액을 맑게하여 원기와 기력을 돋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몸의 냉기를 제거시켜 혈액순환이 잘되어 추위를 이겨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가목 차를 드시며 수행하고 산승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하신 고승으로부터 고유전래의 비법을 전수 받아 청정한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시주 불자님께서 요청하시면 보시합니다.

대진 승 두손 모음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출연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수제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털신 조각무명 특무명 3-1판 세계절단화 지압깔창

최고의 선물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인) 합창  
◆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형!!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부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